

# 분뇨처리 우수목장을 찾아서 - 성양목장 -

목장주 : 황의현(47), 이광래(42)  
주 소 : 충남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 2구 211번지  
전 화 : 041-553-7748  
- 총두수 90두 - 착유우 45두  
- 건유 12두 - 육성우 23두  
- 유지방 4.0% - 체세포 18만  
- 세균수 5,000~6,000 - 우사면적 520평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성양목장의 황의현, 이광래씨 부부!

**파**란 하늘이 한없이 높게만 보이는 계절, 가을이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은 거리에서 텅구는 낙엽과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푸르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만을 보아도 우리 곁으로 왔다는 사실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가을이 왔다고 느낄 때 겨울은 멀지 않았다는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 분뇨처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낙농가

이번 목장 취재는 천안삼거리로 유명한 천안시에 위치한 성양

목장으로 방향을 잡았다.

성양목장은 또한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탁월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여 축산분뇨 때문에 걱정이 많은 우리 낙농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 더욱더 마음이 설렘었다. 천안낙우회에서 성양목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위하여 천안낙우회 구세영회장님과 최인환사무장님께서 기다려주셨다. 두분의 관대하시고 친절하신 첫 인상 때문인지, 긴장된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목장시작 초기에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양목장은 천안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목장에 도착하자 황의현 목장주와 사모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여 주셨다.

성양목장은 우사면적 520평에 착유우 45두 등 총 90두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사는 톱밥을 깔아서 그런지 지난 호에 취재했던 진양목장과 마찬가지로 깨끗함을 더했다.

황의현 목장주는 '89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젖소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한우를 키우고 있다가, 주위에서 한우보다는 젖소가 경제성면에서 훨씬 가치가 있

으며,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꼭 얻을 수 있다는 확신어린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느 목장과 마찬가지로 9두 정도의 적은 수의 젖소로 시작하여 처음 5년 동안은 목장의 확장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그때 힘들었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사모님께서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월 2회 정기진료와 더불어 진료일지를 매일 거르지 않고 쓴다고...**

성양목장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황의현목장주는 질병관리에 큰 힘을 쓰고 있고, 월 2회 정기진료를 하며, 나름대로의 진료일지를 매일 거르지 않고 쓰고 있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관찰을 하며 신경을 쓰고 있으니, 소는 언제나 건강하고, 질병에 걸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IMF도 문안하게 지내온 성양목장은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목장주인 황의현씨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구세영회장님은 말씀하셨다.

**분뇨처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목장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또 다른 성양목장의 특징은 축산분뇨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에 따르면,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지니고 있는 축산분뇨를 폐수로 지정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우리 축산 전체를 잘못된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낙농인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양목장의 황의현목장주는 현재의 목장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분뇨처리에 고심을 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모든 축사에 톱밥을 깔아 소들에게는 아늑한 공

간을 주고 분뇨는 퇴비로 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의 목장은 한번에 5톤차로 6대분량의 톱밥을 쓴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뇨처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성양목장은 자원재활용과 더불어 목장내 청결 등으로 인한 질병 문제 해결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황의현목장주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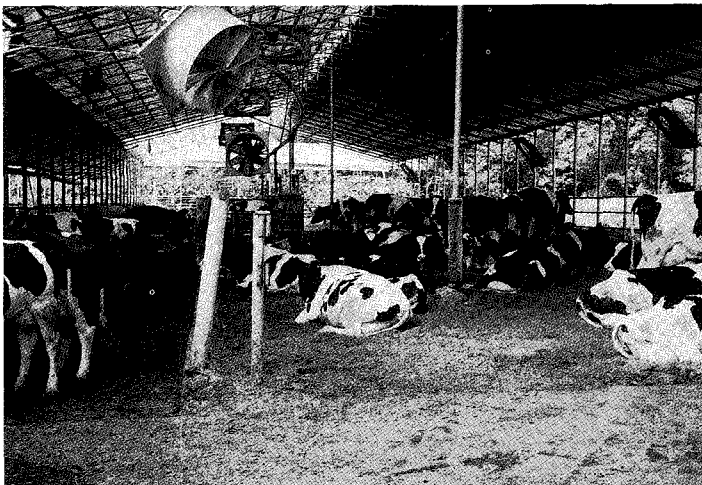
또한 분뇨처리시설이 부담되는 소규모농가는 톱밥이나 왕겨로 우사관리를 하는 것이 분뇨처리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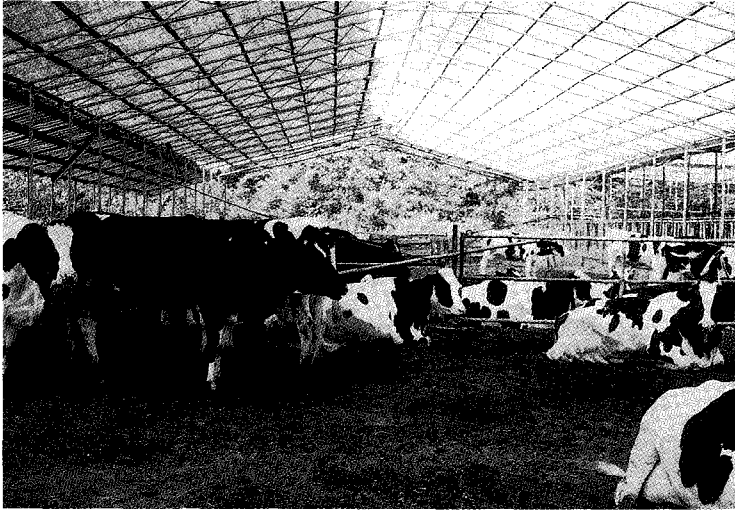
**분뇨처리에 대한 법규 강화보다는 홍보와 지원강화가 이루어졌으며...**

우사에서 톱밥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퇴비사에 저장되었다가 밭에 뿌려서 퇴비로써의 가치를 훌륭하게 의무를 다하며 특

히 옥수수를 가꾸는데, 효율이 있으며 화학비료양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작물들이 가뭄도 덜 탄다고 하니 일석이조, 삼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황의현 목장주는 정부에서 축사나 운동장의





위생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법규강화도 좋지만 낙농인에게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지식과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유도하면서 더불어 톱밥 지원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붙여 말하기를 축산분뇨처리 시설이나 기계장비는 조기에 노후화되고 고장이나 가동중단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시설업체의 사후처리관리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뒤따랐으면 했다. 사실 큰 비용의 시설투자로 인하여 허리가 휘는 낙농가에게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톱밥가격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

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이자도 시중금리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 낙농육우지에 바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는 협회에서 낙농가를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노력해서 낙농가에게 안정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농가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

라고 일축한다. 그리고 톱밥, 조사료 알선사업과 분뇨처리 등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도 많은 활동을 해 낙농가에게 안정적인 공급과 문제 해결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붙여 그는 말하고 있다.

「월간낙농육우」에는 외국 선진 낙농의 사양관리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조사료 문제 해결책 등

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사례를 실어서 우리 낙농가에게 선진낙농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했다.

### 분뇨처리의 신재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

취재를 마치고 구세영회장님과 최진환사무장님께서 손수 고속도로톨게이트 근처까지 배웅을 해주셨다.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두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금지원기준도 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에서 지난 2000년에는 보조 30%, 융자 70%로 변경되어 경제적으로 낙농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축산분뇨도 자원이 아닌 축산폐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축산물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축산업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법규제는 환경부, 자원 지원은 농림부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법적인 규제보다는 유기질 비료로 바꾸는 자원화 방향으로 유도되는 법적인 조치의 필요 등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취재 : 김진중〉